



이 상 희 이사  
(주)SCF

## 알 권리를 우선하는 보도자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

### 알 권리와 알아야 할 기본

누구에게 던지는 돌인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음식에 관한 단어들 중 다 음의 단어들을 얼마나 기억하실는지? 고름 우유 시비를 만들며 서로 옳다하던 우유업체들이 시작이었던가? 물 먹인 쇠고기가 단골 메뉴에 서 사라지자 쓰레기 만두와 공업용 우지에 튀긴 라면을 보도했고, 수 시로 불법 유통된다고 개고기를 보도하더니 급기야는 공업용 색소 넣 은 달걀과 케이지 닭과 계란, 돼지고기까지 한없이 이어져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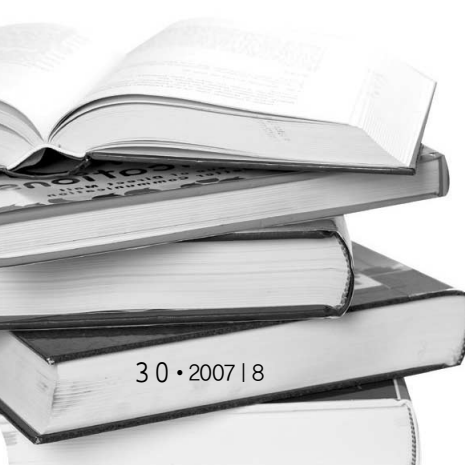
한국 내 수장적인 방송사에서 그것도 환경을 특별하게(Special) 다룬다고 하는 프로그램의 제목부터가 참으로 요상하다. ‘동물 공 장 2부작’ 이란다.

제작 배경은 향후 FTA 상황 하에서 수입량이 늘어가는 외국산에 대해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하기에 국민이 먼저 자각하여 개선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결론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외국산의 배경이나 시설 은 다 좋은 것이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 가축의 본성을 무시한 사육, 무분별한 약품 투여, 수익만을 위해 기타 모든 것이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만 남는다는 것이다.

알 권리가 중요하다면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인가?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라고 굳이 비유하지 않아도 일단 쇼킹한 제목부터 거창하게 때리고 나아 직성이 풀리는 게 언론의 전가보도 란 말인가? 과연 음식은 신성한 것, 귀한 것이란 자각이나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다.





## 진정한 축산물의 품질 조건 예화의 극과 극

보도자들의 말처럼 사육환경이 케이지여서 공간이 좁고 세균 감염이 많아져 질병이 많은 논리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인지? 동물인 가축도 품종과 사료 영양, 사양관리, 사육시설 등 4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결정된다는 건 왜 외면하고 굳이 케이지 하나에만 그렇게 초점을 두는 건지?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럼 꼭 방사한 가축들은 다 청정하다는 근거는 어디 있는지?

그럼, 수십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전원주택보다 산소와 햇빛, 맑은 공기에 접촉할 기회가 적어서 병도 잘 나고 수명도 짧아져 열악하다 말할 수 있는지? 유럽에서 동물 복지정책에 입각하여 자연 상태에 가까운 친환경적 공간에서 키워야만 질병들이 감소한다는데, 과연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그러할까? 되묻고 싶어만진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좋은 품종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사육설비와 가축에 필요한 우수한 영양 사료를 양과 질의 면에서 다 만족하며 환경조절계사에서부터 질병관리까지 지난 30여 년간의 경험에 입각하여 양계분야는 많이 발전해 있다고 다들 인정하는데 이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단지 케이지가 70%면 문제가 되고 그것보다 낮으면 괜찮다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보도가 아닐까.

## 영양인가? 건강인가? 통계의 허와 실

수급균형 및 생산성과 수익성에 의해 해당 업

체의 성장이 좌우되는 건 기업이나 자연계, 동물계 심지어 인간세상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우주의 법칙일 것이다.

진정 업계의 자각과 반성, 나아가 발전을 위해 보도하려 한다면 무엇이 기준이며 그 개선책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했으면 좋겠다.

양계나 양돈 모두 점점 규모의 경제성, 수익의 기회를 무시할 수 없어 업체수는 적어도 사육규모는 압도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닭고기의 경우 계육협회 내 모든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좋은 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시설 투자와 사육농장 관리(질병, 성적)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는데 정작 보도자들은 케이지 설비는 다 건강에 나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1만수 키우는데 보통 500수가 죽으며 바람 한 점 안 들어오는 계사에서 키운다니 이런 황당한 설비를 보유하고 사육하는 농장이 정말 있을까? 물론 그런 농장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있다해도 사육이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당연히 없는데 통계의 허와 실이 안 보이는지? 어떻게 그들의 눈에는 창문은 열기도 닫기도 하는 걸 모르는지?

닭고기는 영양이 우선시 되며 그 결과 건강이 좌우된다는 논리를 펴는데 과연 축산물 증가가 요즘 아이들의 항생제 투여량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약이 없어 못 먹어 감수성이 예민한 60년대 아이와 아파트에서 운동부족과 비만, 작은 감기에도 병원 가서 투약하는 요즘의 세대는 왜 비교를 안 하는지?



영양의 핵심은 균형에 있다고 한다.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고 사용되어 신체 각 부분이 건강해지는 것일진대 단백질 공급원 음식의 대표인 고기와 알에 대해 마치 약품과 같은 건강의 바로미터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지 묻고 싶다.



영양의 핵심은 균형에 있다고 한다.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고 사용되어 신체 각 부분이 건강해지는 것일진대 단백질 공급원 음식의 대표인 고기와 알에 대해 마치 약품과 같은 건강의 바로미터를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지 묻고 싶다.

**총체적인 핵심 보도**

**참 된 알기부터 보도돼야...**

이번 동물공장 2부작의 의도는 이해하나 그렇다고 동의할 수 없는 모순들이 보였다.

사육틀과 케이지 사육, 약품, 인위적 설비 등이 다 문제의 본질로 비쳐졌는데 과연 그것이 전부라고 믿을 소비자가 얼마나 있으며 보도한 대로 알았다 치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당장 개선할 능력은 없고 결론은 자명할 것이다.

각 시설이나 관계자들과 인터뷰한 것 중 앞뒤는 자르고 필요한 부분만 클로즈 하는 방법은 아직도 우리의 보도자들이 특정 장면과 기승전결로 짧은 시간 내에 결론 내어 한 건 성사했다

는 할리우드식 영화와 같은 기법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2부 편성을 하는데 시간이 짧았다면 애초에 더 늘리거나 다양한 취재, 찬반 양론과 전문가의 토론까지 있었으면 좋았겠다. 가장 아쉬운 것은 업계에서 오랜 세월 종사해 온 축산인, 유관 업체 종사자들의 의견은 너무 가볍게 취급된 것만 같다.

신성한 음식으로 먼저 인정되기 전에 마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참살이의 방해물인 듯 한 편성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이미, 동물공장이라고 단정짓는 제목에서부터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극단의 흑백논리가 언제나 개선될 지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보다 더 큰 공포로 남는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허나, 만일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내용을 계속협회에라도 문의하고 방향을 의논했는지 초청하여 요점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첨언이다. 